

처음에는 싹이요...그 다음은 이삭이요 (막4:28)



아주 작은 시작들 그러나 그 끝은 생각 보다 크다.

1. 솟아나는 희망의 싹 (세드릭 청년 이야기)



새신자 세드릭(24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 청년은 약 1년 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밤마다 도둑질과 강도 짓을 일삼다가 결국은 감옥 신세를 진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야운데 감옥의 시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위생과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고, 생필품과 음식을 모두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 내내 빛을 지게 되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세드릭은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육고를 치르고 나와 도파시 교회에 전도를 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던 날부터 찬양과 기도를 열성적으로 하고 예배시간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큰 소리로 회개기도를 하는 등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세드릭은 출소 후 도너츠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와 좁은 집에서 살면서 장사 준비를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 감옥 생활이 끝났으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곳을 해야한다거나 자립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구박 등을 받으며 다투고 싸우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세드릭을 불러내어 방을 얻어주고, 스스로 도너츠 장사를 할 도구들을 사 주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좋아하고, 세드릭도 새 출발의 희망이 가득 차 얼굴이 피었습니다. 세드릭은 이제 새벽부터 도너츠를 구워 투명한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아 시장에 들고나가 팔고 있습니다. 세례공부도 하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며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카메룬 도너츠) 50세파(100원)의 이 도너스는 하루 일용할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2. 사랑과 결혼 (라파엘과 잔다크 가정의 결혼 이야기)

라파엘 청년과 잔다크 자매는 결혼하기로 결심한 지 5년만에 양친 부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카메룬에서 결혼의 순서는 한국에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게 되면 먼저 동거를 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그 때 부모님께 알립니다. 부모님께 혼수와 예물(dot)을 바치고 나면 그제서야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형제와 잔다크 자매의 아이가 5살이 된 지금에서야 지참금을 모두 지불하고 결혼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5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에게 결혼은 커다란 인생의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 집을 마련하고, 결혼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곳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40살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라파엘 청년, 그리고 그의 아내 잔다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2월에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회로 특별히 중보기도학교와 기도운동을 합니다. 15일부터 55일간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안타까운 현지인 가정들의 저마다의 사연과 상황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더위와 생업에 지치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카메룬의 영적 상황은 모든 것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전기문제, 물부족 문제, 끼니 문제, 가정 문제, 학비 문제 등 문제도 참 다양합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 집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재정문제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남편과 아내, 조상 귀신을 탓하며 무당을 찾아 기도를 드리자는 친정 등등 영적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싸바 알레 (잘될 것이니 그냥 참으라)"라고만 하기에는 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4. 비가 안 오는 건기의 생존 비결은? (어린이들의 수난)



(어린이 주일예배후 급식, 아가페)

카메룬은 지금 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건기는 4월에야 끝이 납니다. 바짝 마른 모래바람이 불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온 집안에 먼지가 뿌얕게 내려 앉습니다. 날씨가 더워 어린 아기는 여러가지 질병 (고열, 감기, 말라리아, 눈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나 약국 신세를 자주 지게 됩니다. 병원비나 약값을 내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에게 건기는 너무 가혹한 계절입니다. 선교사인 저희도 선풍기를 틀거나 목욕을 몇 번이고 해도 잠을 설칠 정도로 무더위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5. 감사한 일들

도파시교회 바호깡 자매(47세)는 20년을 길거리에서 우산 하나 의지하며 전화박스를 해왔습니다. 이 자매가 이번에 동네의 은퇴 장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랑 자크. 그녀는 한결 같은 믿음의 행실로 그를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번 그녀의 결혼은 도파시 성도들에게 성도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자크씨에게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그는 바호깡 자매를 만나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하고 질문했을 때 자매가 "내 남편은 예수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6. 기도 제목들 (2021)

- 1) 코로나로 물품이 품절되어 우물 사역이 지체되고 있는데 물자가 공급되도록
- 2) 물자 공급 부족과 자연이 해결되어 림베 교회 건축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 3) 중앙아프리카 국경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동과 사업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 4) 카메룬 영어권 분쟁과 코로나로 인해 강도, 도둑들이 많아지는 문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생업자들의 생활고가 주 안에서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st Africa Cameroun Douala

B.P 12009, Rev. KANG CHANG SUK

Jabez3927@gmail.com / 카카오톡ID: douala39271188

☎ 237.699.993.774/673.445.673

(한국과 시간차이 8시간 (-))